

# 아내 몰래 '몰래카메라' 설치 해 둔 남편

남편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통해 몰래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를 집 안에서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일제히 남편을 비난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의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이 저 몰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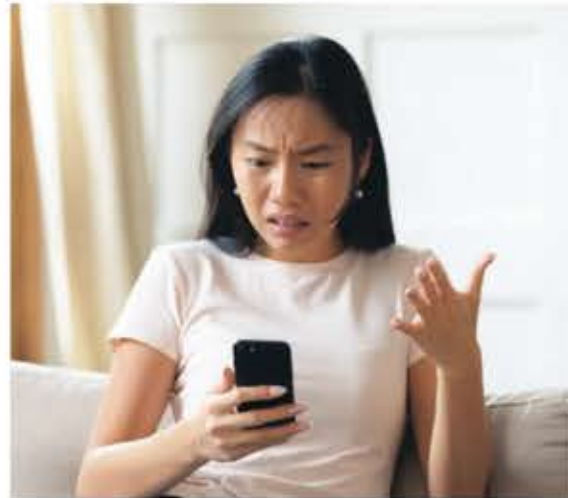
작성자 A씨는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30대 중반의 남편과 오래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애할 때 서로의 휴대전화를 가끔 보긴 했는데, 결혼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일절 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A씨의 남편이 A씨가 잠들어 있을 때마다 수시로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A씨에게 들키면 '원래 서로 확인하지 않았었냐'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게 싫었지만, 쟁기는 것도 없고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안을 정리하던 A씨는 언제부터가 아이 장난감 사이에 꽂혀 있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기에 의문을 품게 됐다. A씨는 "그냥 아이가 장난감 사이에 꽂아뒀구나 하고 별생각 없이 지냈는데, 오늘 문득 이걸로 유튜브보나? 싶어서 휴대전화를 켜 봤다"며 "화면 눌렀더니 'cctv 전면 카메라 작동 중 화면보호기 실행'이라는 알림이 떴다"며 말했다. 남편이 사용하지 않는 공기계에 몰래카메라 어플을 설치하고 아이 장난감 사이에 세워 A씨 몰래 작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통해 작동되고 있던 몰래 카메라의 존재를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다는 A씨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캐물었다. 그러자 A씨의 남편은 "딸아이 보고 싶을 때 가끔 들어가서 봤다"며 "너는 찍히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너가 쟁기는게 있는 거 아니냐"며 되레 화를 냈다. 아이를 보기 위해서라면 왜 진작 (A씨에게)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A씨의 남편은 "까먹었다"며 A씨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제가 왜 꼭해서 생각하는 거냐? 정말 별일이 아닌데 오바하는 거냐?"며 "평소 남편이 휴대폰 보는 것도 사생활 침해로 생각했는데 몰래카메라 어플 설치해서 보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 보려고 했다면 흠뻑을 달거나 방 전체가 보이도록 했을 거다. 못 찾게 숨긴 이유가 있다", "흠 CCTV 잘 나오는데 굳이 안 쓰는 전화기?", "의치증 같다", "이혼감을 넘어 범죄다" 등 A씨 남편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지적했다.

사진=shutterstock

# 동서장례



**Henry H. Lee**  
**이효섭**  
\*Funeral Director, FDR4701 장례지도사  
\*Embalmer, EMB9702 시신방부사  
\*Funeral Insurance 4787740 장례보험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당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 화장 | 매장 | 자연장

경력: 10년 이상 장례지도 시신방부사  
미국 장의사, 로즈힐모즈 근무

저서: 이게 우리 엄마야 맞아?  
미국 장례 상식

John 3:16

# 714.951.2520

## 장의사 이효섭

FD2495 Cypress, CA

www.faithandhopemedical.or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  
(빌립보서 4:6-7)



오랜 의료봉사의 경험으로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

# 신창은 내과

Chris C. Shin, MD

이제 다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하겠습니다.

30년 의학 경험과 지난 10년간 아시아 오지에서의 의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을 선물하는 신창은 내과에서 진료 받으세요!

##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신창은 내과와 함께하는

#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Chris C. Shin, MD**

- 미국내과보드 전문의 (Board Certified)
- 방글라데시 LAMB 미션병원 내과 과장
- 인도 Manali 미션 병원 내과 컨설턴트
- 신창은 내과 원장 (2002-2012)
- UCLA / West LA VA 내과 레지던트
- Rush Medical College, MD, 시카고
- UC Irvine, University of Michigan
-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재학 중 미국 유학



OPEN 진료 시간 8 AM - 4 PM (월요일 ~ 금요일)

진료 예약 **714. 577. 2340**

408 S. Beach Blvd. #204, Anaheim, CA 92804